

삶의 방황과 사상의 역동성을 찾아서

「아우구스티누스」 삶의 고뇌를 탐구하며

이석우

경희대 교수·서양사학

인간을 탐구한다는 일은 영원히 흥미로운 과제이다. 인간은 그 자체 만으로도 위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영웅이나 왕후장상의 삶만 재미있는 생의 역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인간, 시정의 무지랭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스틸있는 역동성이 있다. 문학이, 드라마가, 역사가 궁극적으로는 모두 인간의 이야기다.

삶의 고뇌에 대한 솔직한 고민

내가 아우구스티누스에 흥미를 갖는 것도 인간에 대한 관심의 맥락이다. 더구나 그의 삶에 대한 고뇌와 문제의식이 내가 갖는 문제들과 공통점과 유사성을 많이 띠고 있다는 데 있다. 누구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악과 선은 무엇이며, 항상 떠나지 않는 죄의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리고 사람은 왜 죄를 범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며, 죄를 범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신(神)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가? 역사는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문제들을 아주 정직하게 고민하였다. 그래서 철학서도 읽어 보고, 도그마 종교에 빠져도 보고, 회의주의에 경사되기도 하고,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야생마처럼 치닫기도 했다. 그러나 그를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것은 생에 대한 공허감과 진실을 찾고자 하는 끝모르는 갈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같은 고민들을 자신의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시대와 인류의 문제로 확대하는 중에 해답을 구하려 했다. 한 인간의 사상형성에는 얼마나 많은 방향이 따르는지...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상황이 우리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도 나에게 흥미를 더하게 했다. 그의 시대는 고대문명이 막을 내리고,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리고 있었다. 그 많은 변화는 근본적이고 격동적이며, 혼란은 극심하고 가치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였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결하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답을 제시하는 양식있는 지식의 역할을 다하려 했다.

이는 격랑의 20세기를 마무리짓고 미지의 21세기를 예비하는 이 가치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많다.

신학·역사철학 등 서양지성사의 거두

서양지성사에 미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은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R.Meagher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서양의 3대 지성으로 꼽고, 그가 역사의 측면에서 미친 실제적 영향은 이들 두사람을 앞지른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는 라틴 기독교를 체계화시켰고 중세 천년의 사상적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원류로 평가 받고 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와 칼빈의 신학이론은 기실 아우구스티누스신학의 재발견에 기초하고 있다.

그가 신학과 철학에서 이룬 성과는 현대에도 간단없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파스칼과 뉴만에 이어 현대에 들어 마리탱, 니버, 톨리히와 바르트가 그의 맥을 잇고 있다. 화이트헤드가 “서구철학이 일면 플라톤철학의 일련의 주석이라고 한다면, 서구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이다”고 말한 것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철학은 그의 인문주의적 교육배경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데, 그 저력이 있다. 그가 기독교 교육을 있어서의 예술과 인문학문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도, 후대의 중세 스콜라 철학자 안셀무스나 아퀴나스, 보나벤투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인문주의에 대한 그의 특이한 태도에 있다. 근대 철학의 시발자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의 존재론은 ‘내가 회의함으로 존재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제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근대적 얼굴로 바꿔 놓은데 불과하다. 그리고 정치철학이나 정치사상을 얘기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를 건너뛰고는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일찍이 국가론을 전개하였고, 권위와 규제, 강제성의 궁극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탐구하였다.

그는 또한 역사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목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인물이라 하여 ‘역사철학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는 역사를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현상적 범위에 국한시켜 이해하지 않고 이를 뛰어넘어 역사의 저류에 흐르고 있는 원동력을 파악하



이석우 교수.

려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생활과 갈등, 인간적 약점을 예리하게 통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수준높은 심리학의 기초를 열었다.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은 미학사의 한 자리를 점하게 했으며, 수사학과 논리학에 대한 길트기를 함으로써 문학의 영역에도 여러 영향을 미쳤다.

좀더 넓게 보면 그는 고대의 철학을 히브리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논리를 여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 그의 고뇌와 갈등은 기독교적 방안에서 그 답을 찾고 있지만, 그의 논리는 고대철학을 비판하는 데서부터 찾고 있다. 그 점에서 그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를 갖고 설득력이 있으며, 고대지성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전환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예민한 감성의 소유자

그의 대부분의 집필은 시대적으로 절박한 필요에 대응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동적인 논지를 유지하고 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의 논전에서 자유의지론, 원죄문제, 은총론이 제기되고, 도나투스파와의 대결에서 교회론이 성숙되어 간 것은 이를 말해준다. 게르만인에 대한 로마의 약탈위기에 직면하여 쓴 「신국론」 또한 이같은 필요에서 쓴 대표작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전개과정에서 로마몰락의 원인에 답하고 ‘신국’과 ‘지상국’ 개념을 역사화시켰다.

오늘 현대인이 겪고 있는 뚜렷한 혼미 중의 하나는 가치체계의 혼란이다. 진보사관의 뿌리는 기독교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이를 거



아우구스티누스.

부하거나 이성적 방법으로 이해하려 한다. 근대인들은 신을 대신하여 인간을 역사의 주인 공으로 찾았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인간과 신을 거부하고 사회구조와 변증법적 발전의 세계관을 그대안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것도 최종의 답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이러한 혼미의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경향성의 표출만은 아닐 것이다.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그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의 사상의 편력과 사고의 정리는 어떻게 이루어져갔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사그락거리는 소리와 한밤에 흐르는 물소리에서 무한한 감동을 느꼈던 예민한 감성의 소유자였다. 그는 어린 시절의 오만함과 시기함에조차도 회오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줄곧 그를 괴롭힌 것은 선(善)과 악(惡)의 문제였다. 그리고 보이지 않고 구체적이 아닌 것의 존재를 어떻게 인지하느냐는 문제는 그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였다. 이들 문제는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피누스의 글을 읽음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다. 악은 실체가 아니며 선의 부족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는가? 그것은 의지의 잘못된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죄란 본질에 앞선 의지의 문제로 보았던 것이

원고만 주시고 책으로 받으세요

신사고 신감각으로 고객의 최고 만족을 드리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토탈 에디터리얼 디자인 마루벌

저희는 기획, 편집, 인쇄, 사보, 사사, 광고, 제작 전문 집단입니다.
'마루벌은 뭔가 달라'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
저희는 그것을 전문성과 오랜 경험, 철저한 마케팅분석을 통해 의뢰된 내용이
정확히 표출되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내포된 디자인의 인쇄 미디어다운
인쇄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바로 저희 마루벌에 있습니다.
그것은 출판·홍보·광고 기획, 편집, 운문, 교열, 디자인, 식자, 출판,
제판, 인쇄, 코팅, 제본에 이르기까지 저희 마루벌은 전문성과 감각,
정확성과 함께 '흔'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에디터리얼 디자인을 원하십니까?

사보, 사사를 만들고자 하는 회사는
저희 마루벌의 완벽한 최첨단 시설과 프로의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살아있는 제3의 창조물로 만들어 드립니다.

- **기 획** / 원고 기획·마케팅·편집계획·광고 등 종합 컨설팅!
- **디자인** / 표지·본문·광고·카드록 등 마케팅전략에 의한 감각적·차별적 디자인!
- **운문·교열·교정** / 완벽한 문장 구성·충실한 내용 재현을 위한 제3의 창조!
- **식자·출력** /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매킨토시 완벽 출력 서비스!
- **제 판** / 최신 설비에 의한 단색·원색 제판!
- **인쇄** / 예술성 있는 완벽한 색의 재현·고품질 인쇄!
- **제 작** /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세심한 코팅·제본!

만족이 있습니다

마루벌

Tel: 701-3720 (대표)
Fax: 701-3721



서울 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129-22호

최상의 신감각 디자인 최고의 프린팅 테크닉의 만남

아우구스티누스에 흥미를 갖는 것은

곧 인간에 대한 관심의 맥락이다.

그의 삶에 대한 고뇌와 문제의식은

내가 갖는 문제들과 닮아 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가치체계의

혼란기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양식있는 지성의 역할을 다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날 흥미한

가치혼돈의 시대에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인물임에 틀림없다.

다. 이 점에서 어거스틴사상의 핵심은 의지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물론 그는 창조, 영혼, 교사론, 인식론, 기억, 질서론 같은 광범위한 제문제들에 대해 해박하고 논리적인 자기주장을 펼치고 있다. 물론 신국론에서 보여주는 역사관과 그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시간들에 이르기까지...

필연성과 자유의 문제

그러나 그의 의지론, 특히 펠라기우스와의 논전을 통해 보여준 '자유지론'이야말로 그의 사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필자는 감히 말하고 싶다. 자유지론의 여러 측면들이 그의 말년에 치열했던 펠라기우스파들과의 대결에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 갔다는 점도 이를 돋보이게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다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부여되었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뜻대로 행해질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인간의 힘에 의지하여 전적으로 자기책임 아래 행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극단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구속적(救贖的)역할을 무력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지를 완전한 것으로 보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찬동할 수가 없었다. 반면 그는 의지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힘, 즉 능력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의지의 행사와 그를 실행에 옮길 힘의 행사는 두개의 다른 기능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의욕과 능력

은 다르다는 얘기다.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할 수 있다고 반드시 원하는 것도 아니다.

펠라기우스에게 의지의 본질이란 선택하는 힘을 뜻하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적 기능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의지작용의 선택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은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의지의 자유로운 행사는 선택의 능력(capacity to choose)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capacity to fulfill)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펠라기우스는 자유주의가 작용하는 영역을 '본성'에서 구하고 있는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은혜'의 맥락에서 찾고 있다.

여기에서 필연성과 자유의 문제가 제기된다. 펠라기우스는 필연에 묶인 것은 자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지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본성이 갖는 필연성에서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본성'을 인과의 질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질'(human constitution)로 본다. 물론 거기에는 일종의 필연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본성의 필연성이란 의지 자체에 의해 의지에 가해진 필연성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어려운 주제를 다루었지만 읽는이는 쉽고 재미있게 읽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누구나의 공동된 바람이겠지만, 본 주제에서 가능한 한 경향성을 탈피하여 좀더 자유롭게 접근하고 싶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다. 사실 이 책은 다른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업적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어거스틴 연구의 작은 정리가 되고, 더 알찬 연구를 위한 준비의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쉬움을 대신한다. 모든 것이 변하고, 그리고 너무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고전과 선인들의 행적으로 돌아가 근본을 일깨웠으면 한다. 기초학문과 역사의 가르침을 늘 소중히 하는 옥스퍼드의 학풍이 내게 더욱 부럽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옥스포드에서)

민음사/A5신/434면/13,000원